

정치연합이론의 시각에서 본 인도의 선거연맹의 이해와 분석:

새로운 삼각영역 이론의 고안과 적용*

최정욱 |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이 글에서는 정당연합에 관한 기존의 문헌이 선거 이후 연립정부 구성을 위한 논의에 치중한 것과 달리 선거이전 정당연합, 즉, 선거연맹 혹은 연합(pre-electoral coalition)에 초점을 맞추어 정당연합을 논의한다. 특히 소선거구제 아래서의 선거연맹을 정당 간 후보 공천권의 양보와 양도를 통한 의석의 조정으로 규정하고, 개별 선거구에서의 정당의 경쟁구조를 가지고 선거연맹의 성패를 분석하였다. 이 글에서 제시한 이론은 갠스와 라이커의 정치연합 일반이론(크기원칙과 최소비용연합이론)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그것은 기존 이론들이 선거이후 확정된 각 정당의 의석 점유율을 가지고 연립내각을 구성하기 위한 정당연합을 다루는 것과 달리 선거이전에 일어나는 연합을 설명하기 위하여 선거에서의 불확실성을 감안한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연맹 부재시 1위와 2위로 추정되는 정당의 득표율 차이가 어느 정도 크고(여기서는 편의상 5%이상을 큰 것으로 봄) 3위로 추정되는 정당의 득표율 역시 어느 정도 큰 동시에 이 3위의 정당득표율이 1위와 2위의 정당 득표율 차이를 초과할 때 선거연맹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이러한 이론을 그림으로 표현하여 보았는데 이것이 선거연합가능 삼각영역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삼각영역 이론을 국내외 비교정치연구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루었던 인도에서의 주별 선거결과, 특히 1999년과 2004년 선거결과를 가지고 검증하여 보았다.

주제어: 정당연합, 선거연합(연맹), 정치연합이론, 크기원칙, 최소비용연합이론, 삼각영역이론, 인도, 선거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8-327-B00045). 저자는 또한 몇 가지 주요한 조언을 하여 준 익명의 심사위원들과 박건 조교와, T.S. Chandrashekar, D. Ravinder, Jose George, A.K. Verma 등 인도 현지조사 과정에서 도움과 조언을 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표하고자 한다.

1. 서 론

여기서는 인도국민회의당(Congress)의 일당우위체제가 와해되고 본격적으로 다당제가 등장한 이후 인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선거 이전(pre-election) 정당연합, 간단히 선거연합 혹은 선거연맹을 정당연합에 관한 일반 이론의 시각에서 분석하여 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가 필요한 이유는 첫째로 라이커(William Riker)와 갠슨(William Gamson)이 1960년대 초에 본격적으로 계발한 정치연합 이론(theory of political coalition)이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경험적인 적용과 관련하여서는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정치연합 문헌의 대부분은 내각제 아래서 선거 이후(post-election)에 진행되는 정당 간의 연립정부 구성문제나 안정성에 관한 분석에 치중하고 있다. 따라서 선거 이전에 일어나는 정당연합의 원인이나 과정에 관한 연구는 골더(Golder, 2005)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아주 드물다.

또한 정당연합론을 경험적으로 적용하려는 연구들은 대부분 유럽의 경험을 분석한다(예를 들면, Muller and Strom, 2000; Browne and Dreijmanis, 1982; Laver and Budge, 1992 등). 이에 반해서 인도의 정당 연합에 관한 경험적 연구들(Singh et al., 2007; Singh, 2001; Singh and Mishra, 2004; Sridharan, 2004; Majeed 2000 등)은 서구를 중심으로 계발된 기존의 정당 연합이론들에 비교적 무관심한 편이다. 정치연합에 관한 이러한 불균형을 조금이라도 보완하기 위하여 여기서는 인도의 정당연합을 이론적으로 분석하여 보고자 한다.¹

기존의 정당연합이론은 연합의 목표를 무엇이라고 보느냐에 따라서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정치연합의 게임에 걸린 이권(stakes)이 내각의 각료자리(cabinet portfolios) 또는 정부의 공직이라고 보는 이론들이다.

1. 예외적으로 인도정당연합에 관한 이론적인 논의는 Wyatt(1999) 참조.

여기에는 크기원칙(size principle) 혹은 최소승리연합 원칙(minimum winning coalition principle)을 제시한 라이커와 최소비용연합 원칙(cheapest coalition principle)을 내놓은 갠슨 등 정치연합이론의 초기 이론가들과 이 이론들을 발전시킨 일군의 학자들(예, Shepsle, 1974)이 속한다. 이들은 일정 크기의 주어진 이권 속에서 개별 참여자들이 향유하는 이권을 최대화하는 것을 정치연합의 목표로 보았다. 이러한 이론적인 시각 때문에 이들은 주로 내각을 구성하는 정치연합을 영합게임(zero-sum)으로 보았고 주요한 연구 관심사는 내각을 구성하는 정당들이 차지하는 총의석이 전체 국회의석의 50%+1에 근접하는가였다. 만약에 이러한 최소의석수를 초과하여 구성되는 거대연립정부가 발견되거나 아니면 그보다 모자라는 의석으로 연정을 구성하는 소수연립정부가 관찰된다면 이것을 일시적 현상 혹은 과도정부에서 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간주하곤 하였다. 아니면 이념이나 정책이 유사한 정당들을 모두 연립정부에 포함하려고 하였기에 부득이하게 최소규모 이상으로 내각이 커졌다거나(minimum connected winning coalition theory), 합의를 존중하는 정치적인 규범이나 기타 제도적인 제약조건들 때문에 대연정에 가까운 연립정부를 구성하게 되었다고 설명을 한다(theory of constraints).²

두 번째 부류의 이론에서는 정치연합의 목표가 정책(policy)이나 이념(ideology)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본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레이버와 버쥐(Laver and Budge, 1992)를 들 수 있다. 이들은 반드시 정부 내각의 자리를 나누기 위한 연합(executive coalition)만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이들은 이보다는 의회 내에서의 법안이나 정책을 통제하기 위한 연합(legislative coalition)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다. 이것은 이른바 공간이론(spatial theory)이나 유럽정치를 경험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이 주로 내세우는 이론이다. 또한 미국의 의회 내에서 특정 법안을 두고서 소속 정당을 초월하여 의원들 간에 일어나는 연합을 연구할 때 주로 사용하는 분석틀이다. 이들은 정치연합을 추동하는 것이 내각의 각료자리가 아니라 정책이기 때문에 정치가 영합게임이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반드시 어떤 정당이 자신의 정책을 구현하기 위

2. 이런 연구에 대한 요약은 Mueller(2003: 278-284) 참조.

하여 내각에 입각할 필요가 없게 되는데 이로써 소수연립정부의 구성도 이론적으로 가능하게 된다. 하지만 이들 역시 정책에 대한 고려만으로 정당연합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이외에도 다양한 제한(constraints)을 열거하고 있다(Laver and Budge, 1992).

첫 번째와 두 번째 부류의 연합이론이 비록 서로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주요한 관심사가 내각 구성을 위한 선거 이후의 연합이라는 사실에서는 동일하다. 즉, 이들은 내각 구성을 위한 연합이나 의회 내의 표결을 위한 정당 연합에 많은 관심을 갖는 반면에 선거에서의 정당 간의 연합에는 상대적으로 무관심하다. 이에 반해서 세 번째 부류의 이론은 정당 간의 연합 중 선거 이전의 연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선거연합에 관심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연구한 논문은 아마도 골더(Golder, 2006)가 처음일 것이다. 그녀는 이념상의 유사성, 예상정당연합의 총의석수, 극단적인 정당의 배제와 통제, 선거제도에 존재하는 표와 의석 간의 불균형, 정당의 수 등을 가지고 정당연합 가능성을 설명하고자 한다. 몇 가지 이론적인 문제점은 차치하고라도 그녀의 실제 사례 분석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가장 큰 맹점은 선거연합의 개념이 너무 광범위하다는 것이다. 그녀에게 선거연합이란 두 개의 정당 간에 선거 이전에 이루어진 모든 종류의 전략적 공조(co-ordination) 행위를 말한다. 공조의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정당연합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내용과 무관하게 그러한 공조를 대외적으로 공표하였느냐에 따라서 정당연합 여부를 판정한다. 하지만 여기서는 정당연합을 보다 엄격하게 정의하여 단순히 정책이나 선거운동의 공조 선언만이 아니라 정당 간에 개별 선거구에서의 입후보 여부를 상호 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골더의 연구가 정치연합이론의 경험적 연구에서 상당히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녀의 설명 역시 기존의 연구 틀을 크게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다. 그녀의 이론 역시 정당연합의 기본적인 목표를 내각에서의 자리 확보나 정책의 실현으로 종종 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이전 정당연합을 분석하려면, 무엇보다 정당연합의 목표를 선거에서의 의석의 확보라는 차원에서 보아야 하고 이런 경우, 전국적인 범주의 분석보다는 선거

구 단위의 차원에서 정당 간 이해득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이것은 소선거구제 아래서의 선거연합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더욱 필요한 접근법이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는 기존의 이론과 달리 정당연합의 목표는 보다 많은 지역구에서 의석을 늘리는 것이라고 본다. 정책의 실현이든 내각의 의석 획득이든 일단은 선거에서 승리하여 보다 많은 의석을 획득하여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유명한 다운즈(Anthony Downs)의 말을 빌리자면 정당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정책을 내놓는 것이다.

II. 연구 가설의 설정과 토론

개별 선거구 단위의 선거연합에 초점을 맞추어 정치연합을 연구하게 되면, 특히 인도에서와 같이 소선거구제 아래서의 선거는 영합게임이다. 정당에게 는 선거구에서 이기느냐 지느냐 두 가지밖에 없다. 의석 이외에 다른 보상체계(pay-off)가 없다고 한다면 선거연합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정당 간에 선거구의 적절한 배분을 통하여 개별 정당이 단독으로 입후보 하였을 때 얻는 총 의석보다는 연합하였을 때 얻는 총의석이 많아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소선거구제에서의 정당연합의 일반원칙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전략적 연합-일반 원칙) 소선거구제를 택하고 있는 선거에서 3개 이상의 정당이 있을 때 하나의 선거구에서 2개 이상의 정당이 연합하여 추가로 우승할 수 있는 선거구의 수가 충분히 많고 이러한 추가 의석들을 연합하는 정당에게 배분할 때, 개별 소속 정당 모두에게 단독으로 선거에 입할 때보다 득이 될 때 이 정당들은 선거연합을 시도할 것이다.

이러한 일반 원칙을 염두에 두고, 선거구에서의 경쟁구도를 중심으로 정당 연합의 가능성을 설명하려고 할 때 첫 번째로 참고할만한 이론은 라이커(1962; 1980)의 크기원칙(size principle) 혹은 최소승리 연합론(minimum

winning coalition)이나 갬슨(1961)의 최소비용 연합론(cheapest winning coalition)이다. 승리 가능한 연합이 있다고 할 때 단 하나의 구성원이라도 이탈한다면 곧바로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합을 극소승리 연합(minimal winning coalition)이라고 한다. 여기서 라이커나 갬슨이 말하고자 하는 크기 원칙이나 최소비용 연합은 이러한 극소승리연합 중에서 최소의 자원으로 승리하는 연합 즉, 승리지점(winning point)을 최소로 초과하는 연합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서, 50%+1이 당선의 최저득표율이고, 3개의 정당, A, B, C가 각각 48%, 30%, 22%를 득표할 것으로 예상하여 보자. 이런 경우 가능한 3가지 연합 모두(AB, BC, AC)가 극소승리연합이 될 수 있는 반면에 최소비용 연합이나 최소승리 연합은 오로지 하나만 존재한다. 가장 큰 정당을 배제한 B와 C의 연합(52%)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연합이 다른 연합과 비교하여 최소비용 연합이고, 또 극소승리 연합이자 동시에 최소승리 연합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예로, 만약에 3개의 정당이 100/3%, 100/3%, 100/3%로 표를 나누고 있다면, 최소승리 연합론은 세 개 정당 중 어떠한 두 개 정당끼리도 연합을 할 수 있다고 본다. 다시 말하면, v_1, v_2, v_3 를 각 정당의 득표율이라고 할 때, 최소승리연합= $\min\{v_2+v_1, v_1+v_3, v_2+v_3, v_1+v_2+v_3\}$. 이것은 만약에 $v_1 > v_2 > v_3$ 라면 최소승리 연합은 언제나 $v_2 + v_3$ 의 연합, 즉 2위와 3위의 연합이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최소승리를 위한 득표율이 반드시 50보다 약간 큰 어떤 절대적 수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예를 들면, 3개의 정당이 각각 35%, 34%, 31%의 득표율을 보이고 있다면, 34%+31%의 정당연합이 일어날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리하여 연합정당의 득표율은 단순 계산할 때 65%가 되어, 50보다 25포인트가 클 수가 있다. 또한 최소승리 연합은 경쟁구도에 따라서 50% 이하가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4개의 정당이 각각 40%, 30%, 16%, 14%의 지지율을 보일 때, 선두 정당의 득표율인 40%를 초과하기 위하여서 30+16, 30+14, 30+16+14의 연합이 가능하지만, 이 중에서 마지막 것은 극소승리연합이 아니며, 앞의 두 개만 극소승리연합이지만, 이 두 개 중에서도 30+14만 최소승리 연합이다.

승리를 목표로 하는 정당이 경쟁적인 선거에서 맺을 수 있는 정당연합은

현실적으로 위에서 말하는 최소승리연합밖에 없을 것이다. 이것은 3당이 경쟁한다고 할 때, 언제나 2위와 3위 간의 연합을 의미한다.³ 1위 정당을 이기기 위하여 소선거구제에서 2위와 3위 정당이 선거연합을 한다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그러한 선거연합이 쉽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보다 현실성 있는 설명을 위하여 이러한 일반가설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개별 선거구의 경쟁구조에 초점을 맞추어 정당연합 가능성을 설명하려고 할 때, 위의 최소승리연합이론이 갖는 문제점은 우선은 선거에서의 득표율이 정당마다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정당 간의 득표율을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이러한 어려움은 인도선거에서 더욱 심하다. 따라서 이러한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정당 간 연합을 설명하여야만 한다. 또한 최소승리연합이론이 암시하는 바와 같이, 정당 간 연합을 통하여 후발 정당들이 선두 정당을 최소규모로 이길 수 있다고 하여 모든 경우에 연합을 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1위와 2위의 차이가 근소하고 3위가 비록 절대적으로 미미한 지지율을 가지고 있지만 1위와 2위의 승리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하여 정당연합이 항상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경우, 1위나 2위 정당은 연합을 하지 않고 단독으로 경쟁하는 위험을 감수할 수도 있다. 이런 새로운 가능성들을 고려하여 수정한 가설은 다음과 같고 이것을 요약한 것이 <표 1>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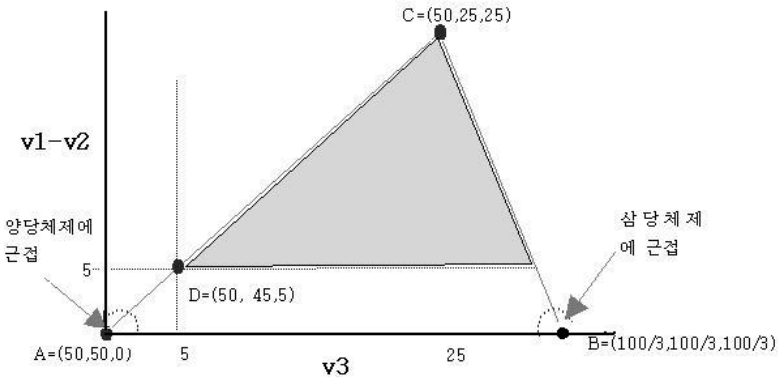
(전략적 연합과 선거구 경쟁구조) 하나의 선거구에서 3개의 정당이 있고 논의의 편의상 이 세 개의 정당이 경쟁력이 동일하지 않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지지율로 볼 때 2위 정당(v2)의 경우 단독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야만 정당연합을 시도할 것이다. 하지만 최소승리연합이론과 달리, 1위 정당(v1)과의

3. 이론적으로 선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연합은 세 가지이다. 정당연합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거대연합을 이루어 승리하든지 아니면 최소규모를 유지하여 승리하든지 아니면 아예 최소표도 못 얻어 패배하게 되지만 여전히 연합하는 경우 이런 3 가지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정말로 경쟁적인 선거를 전제로 한다면, 우리는 대연정에 준하는 최소규모 이상의 거대선거연합은 현실성이 거의 없다. 또한 우리는 정당의 목표가 선거에서의 승리라고 한다면, 굳이 패배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당연합을 형성하는 이유가 없다고 본다. 따라서 최소승리연합만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연합이다.

〈표 1〉 정당 경쟁구도와 연합 가능성

		v1-v2	
		크다	작다
v3	크다	높음 (I) (단, $v3 > (v1-v2)$)	낮음(II)
	작다	낮음(III)	낮음(IV)

주: 최소승리연합은 $v1-v2 < v3$ 인 이상 정당연합이 일어난다고 본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에는 오로지 영역 I에서만 정당연합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본다. 영역 IV는 거의 양당체에 가까운 경쟁구도이고, 영역 II는 3당 체제를 포함하는 영역이다. 영역 III은 일당우위의 정당체계를 포함하고 있는 영역이다. 또한 여기서 크다는 기준은 편이상 5%와 그 이상으로 규정한다.



주: 그림에서 점 A=(a, b, c)에서 a, b, c는 개별 정당의 지지율 v1, v2, v3를 의미한다.

그림 1. 정당연합이 가능한 이론적 삼각영역: 3당 경쟁의 경우

차이가 선거의 불확실성(α %)을 감안하더라도 단독으로 극복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정당연합을 시도할 것이다. $v1-v2 > \alpha > 0$. 이것은 즉, 1위와 2위의 표차가 너무 적어서도 안 되며(이런 경우, 특정 정당은 단독으로 이길 수 있다고 판단하여 정당연합을 시도하지 않을 것이다) 어느 정도 벌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그 표차가 특정정당이 정당연합 전략을 통하여 극복하기에 너무 커서도 안 된다. 제3의 정당($v3$)과 연합을 하는 경우, 1위 정당을 이길 수 있어야만 한다. 즉, $\alpha < v1-v2 < v3$ 그리고 $v3 > \alpha$. 이것은 다시 말하면 3위 정당의 지지율이 어느 정도 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경우 2위 정당은 3위 정당과 정당연합을 시도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조건을 충족

하는 개별 선거구의 수가 연합정당끼리 분배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많아야 한다.

이러한 이론을 도식화한 것이 그림 1이다. 여기서 불확실성을 5%로 잡으면, 정당연합이 가능한 영역은 그림 1에서 회색으로 처리된 부분이다. 물론 여기서 임의적으로 불확실성의 크기를 변경하면 구역의 크기가 바뀌지만 기본적인 구도는 변경되지 않는다.

위에서 명시한 조건만이 아니라 나아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할 때 정당연합이 보다 용이하게 일어날 수 있다. 정당연합을 시도하는 정당이 위의 표에서 1의 영역에 들어와야 할뿐만 아니라 또한 그 영역 속에 존재하는 정당들이 선거구를 통틀어 비교적 단순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국회의당이 2위 정당(v2)으로서 3위 정당(v3)과 연합을 하고자 하더라도 상대방 정당인 3위 정당이 선거구마다 이질적이라면 주 단위에서 연합이 성공하기 힘들다. 여기에서 만약에 정당연합을 통하여 이겨야 하는 주요한 경쟁정당(v1)이 선거구마다 동일하다면 훨씬 결속력이 강한 정당연합이 가능하다.

이 논문의 가설이 암시하는 바는 여러 가지이다. 첫째로, 대안적 가설로 흑자는 1위와 2위의 차이가 작을수록 정당연합이 보다 용이하고 3위의 득표율이 높을수록 정당연합이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정당연합의 가능성은 단순히 3위의 득표율에 비례하고 1위와 2위의 득표율 차이에 반비례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글은 이러한 대안가설을 부정한다.

둘째로, 나아가 이 글은 두 개의 정당이나 3개의 정당이 득표율이 비슷한 경우 정당연합이 잘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도 부정한다. 갠슨(1961)이나 일부 삼자경쟁구도 연구자들의 경우,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두 개의 주요 정당이 득표율이 거의 동일하고 제3의 군소정당의 득표율이 미미하지만(예를 들면 1%를 득표한다고 하면) 최종승자를 결정할 수 있다면 두 개의 주요 정당 모두 경쟁적으로 이 군소정당과 연합을 시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⁴ 하지만 위의 가설은 오히려 이런 경우, 두 개의 정당은 군소정당과 연합을 시도

4. 삼자경쟁구도 연구에 관한 기본적인 논의는 Caplow(1956) 참조.

하지 않고 단독으로 입후보하여 기꺼이 패배의 위험(risk)을 감수할 것이라고 본다. 마찬가지로 3개의 정당이 거의 동일한 득표율을 보이는 경우, 이 중 두 개 정당이 언제든지 정당연합을 통하여 다른 하나의 정당을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가능성조차 부정한다. 다시 말하면, 위에서 제시한 이 논문의 가설에 따르면, 2위와 3위의 차이가 얼마 나지 않고 1위와 2위의 차이가 얼마나지 않는다면($v_1 - v_2 < \alpha$), 정당연합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러한 결론은 다시 말하지만 그런 경우에 어떤 정당하고도 연합이 가능하다는 껌슨이나 다른 삼자경쟁(triad) 연구자들의 주장과 상치된다.

마지막으로 이 글은 선거연합을 설명하기 위해서 공통의 이념이나 사회경제적인 이익 혹은 전국적인 내각구성의 필요성 등을 살펴보기 보다는 우선 개별 선거구에서의 정당 간 경쟁구조를 먼저 보아야만 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바꾸어 말하면, 정당의 정책, 이념 혹은 사회경제적 지지기반(예, 카스트)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지 않고서도 선거구 내의 정당 간의 경쟁구도만으로 선거연맹 여부를 상당히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글은 개별 선거구에서의 경쟁구도와 무관하게 이념이나 정책 혹은 사회적 기반을 공유하는 정당끼리 선거이전에 연합할 가능성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그러한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또한 종종 정당이 선거에서의 승리를 위하여 적과도 동침한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III. 인도에서의 선거연합 분석

이 절에서는 앞의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인도의 선거연합을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 연구의 초점은 최근의 일련의 인도 총선거(Lok Sabha elections), 특히 2004년 총선거에서 일어난 정당연합을 살펴보고 그러한 정당연합이 앞서 논의한 이론에 비추어 어떻게 설명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2004년 선

거는 지금까지 선거 중에서 여기서 말하는 정당연합의 형태인 선거연합이 가장 많이 이루어진 선거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2004년 선거를 이전 선거와 비교하는 식으로 선거연합을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국민회의당(INC)은 지금까지 다른 경쟁정당인 인도인민당(Bharatiya Janata Party, BJP)이나 인도공산당(Communist Party of India-Marxist, CPM) 등과 달리 선거연맹에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하다가 2004년에 와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다.⁵

우선 앞에서 제시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연구에 적절한 주를 골라 내어야 한다. 선거연합은 정당 간의 의석교환을 논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구대상이 되는 주는 선거구의 수가 많아야(여기서는 10개 이상으로) 한다. 전체 543개 선거구를 주별로 살펴볼 때 선거구가 10개 이상인 주나 연방령은 2004년 기준으로 17개이다.

이러한 17개에서 국민회의당을 중심으로 한 선거연합 여부를 따지기 전에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그것은 어떤 경우를 유의미한 정당연합으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다. 이 논문에서는 유의미한 정당연합을 최소한 그 주에서 어느 정도의 득표율을 가지고 있는 정당끼리의 연합이라고 본다. 따라서 득표율이 1%도 안 되는 정당과의 연합은 하나의 연합으로 보지 않는다. 예를 들면, 우타르프라데시(Uttar Pradesh)에서 2004년의 경우 의미 있는 연합은

-
5. 2004년 선거에 대한 전반적인 선거관련 세부 보고서는 *Economic and Political Weekly*(December 18-24, 2004) 참조. 인도정치와 선거에 대한 개괄적인 논의는 Choi(2009), Hardgrave and Kochanek(2000), Kohli(2001), Chhibber and Kollman(2004), Jenkins(2004), 고경희(2001), 최정욱(2007; 2008) 등을 참조. 이 연구에서는 국민회의당이 2004년 선거에서 왜 승리를 하였는지를 정당연합을 통하여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2004년에서의 인도국민회의당의 승리가 정당연합 때문이라는 주장을 하는 것도 아니다. 이 연구에서는 그 이전과 달리 2004년도에 와서 국민회의당이 정당연합을 강화하는 전략을 취하였고, 일부는 성공적으로 정당연합을 하였기 때문에 정당연합의 성공여부에 관한 원인분석을 하고자 할 뿐이다. 또한 정당연합에 대한 강조가 결코 인도에서의 선거결과에 대한 카스트의 중요성을 부인하는 것이 아님을 부인하고자 한다. 1980년대와 1990년에 들어와서 인도의 정치는 카스트와 종교 문제로 정당이 파편화되어 더 이상 인도국민회의당을 중심으로 한 포괄정당의 개념은 인도에서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카스트와 종교의 중요성은 최근의 2009년 선거에서 어느 정도 약화되었지만 여전히 인도정치를 설명하는 중요한 변수들에 속하는 것은 사실이다. 이 연구 역시 이것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다만 카스트와 종교에 의한 분열에도 불구하고 정당끼리의 선거연합을 위한 노력은 일어나고 있는데, 이 연구는 선거연합 현상에 초점을 맞추어 그것을 설명하고자 한다.

국민회의당, 인도인민당, BSP(Bahujan Samaj Party), SP(Samajwadi Party) 간의 연합일 것이다. 하지만 겨우 0.28%를 득표한 LJSP(Lok Jan Shakti Party)와 국민회의당의 연합은 사실상 하나의 의미 있는 연합으로 보기 어렵다.⁶

또한 주에서 의미 있는 정당이 두 개에 불과하여 각 정당이 단독으로 승리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굳이 소규모 정당과 연합을 시도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경우 실질적으로 연합을 시도할 대상이 부재한 경우에 해당하여 분석에서 제외한다. 구자라트(Gujarat, 26석)와 라자스탄(Rajasthan, 25석)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들과 달리 양당제가 정착되지 않았지만, 양강구도의 경쟁 때문에 국민회의당이 선거연합을 맺을 대상이 부재한 주들이 있다.⁷ 그것은 안드라프라데쉬(Andhra Pradesh, 42석), 오리사(Orissa, 21석)와 웨스트벵골(West Bengal, 42석)이다. 안드라프라데시의 경우는 1999년에 사실 양강구도(bipolar)의 경쟁구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 주에서 주요한 3개의 정당 중 인도인민당과 TDP(Telugu Desam Party)가 선거연합을 형성한 상황에서 국민회의당은 선거연합을 할 대상이 부재한 상태였다. 따라서 2004년 선거에서 상대방 선거연합이 와해되거나 분열되지 않는다면 국민회의당은 정당연합을 할 수가 없었다. 물론 2004년도에 TDP에서 새로운 당(Telangana Rashtra Samithi, TRS)이 분당되어 나오자 그 당과 선거연맹을 형성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여기서 분석자료의 기준으로 삼는 1999년의 선거결과만 놓고 본다면, 선거연맹을 시도할 대상이 부재한 주에 해당한다. 오리사의 경우에도 인도인민당이 다른 정당인 BJD(Biju Janata Dal)와 이미 연합을 형성하여 국민회의당과 경쟁하고 있었다. 웨스트벵골의 경우 인도공산당(CPM)이 주도하는 좌파연합이 1999년에 29석을 차지하여 지배적인 입장이고 이에

-
6. 여기서 정당이름은 우리나라에서 비교적 통용되는 한글번역명 이외에는 모두다 영문 이니셜로 통일하여 적는다. 이것은 인도연구에서 종종 사용되는 방식이다. 인도주의 한글표기는 연합뉴스에 따른다.
 7. 양당제와 양강체제는 다른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는 양당제는 유효정당의 수가 2에 근접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양강체제는 여기서 비록 주요 정당이 3개 있더라도 2개의 정당이 연합하여 하나의 축을 형성하고 나머지 한 정당이 다른 축을 형성하는 형국을 포함한다.

대항하여 3개의 정당이 분열되어 있었다. 8석의 TRMC(Trinamool Congress), 3석의 국민회의당, 그리고 2석의 인도인민당이 있었는데, 여기서 TRMC의 경우 이미 1999년에 의석조정을 통하여 인도인민당(BJP)과 연합을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기존의 연맹이 붕괴되지 않는 이상 국민회의당이 연합을 할 대상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실제로 2004년에 TRMC는 인도인민당과 연합을 유지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민회의당의 정당 연합이 1999년과 2004년에 연속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2004년의 정당연합 여부를 1999년 자료를 가지고 분석하기 힘든 경우에도 연구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주는 비하르(Bihar, 40석), 자르크한드(Jharkhand, 14석), 케랄라(Kerala, 20석), 타밀나두(Tamil Nadu, 39석)이다. 두 선거에 있어서 정당연합은 상수(constant)이다.⁸

그 결과, 2004년에 10개 이상의 선거구를 가지고 있는 주 가운데 국민회의당이 의미 있는 선거연합을 실제로 형성하였는지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마하라슈트라(Maharashtra)의 경우 1999년도와 달리 국민회의당은 의미 있는 선거연맹을 형성하였다. 그 외 아삼(Assam, 14석), 하리아나(Haryana, 10석), 카르나타카(Karnataka, 28석), 마다프라데시(Madhya Pradesh, 29석), 차티스가르(Chhattisgarh, 11석), 펀자브(Punjab, 13석), 우타르프라데시(Uttar Pradesh, 80석)의 경우 국민회의당이 2004년도에 선거연합을 이루지 않은 주이다.

<표 2>에서 보듯이 국민회의당이 2004년도에 와서 그 이전보다 선거연맹에 보다 적극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기대수준 이하이다. 이것은 소선거구제에서 국민회의당이 처한 상황을 보면 더욱 이해하기 힘들다. 일반적으로

8. 자르크한드의 경우 2004년도 선거에서 비하르에서 분리되어 별도의 주로서 선거를 실시하였다. 1999년 선거와 2004년 선거 사이에 3개의 주가 각각 2개의 주로 분할되었다. 마다프라데시의 경우 차티스가르 주가 2000년 11월 1일에, 비하르 주의 경우 자르크한드 주가 2000년 11월 15일에, 우타르프라데시 주의 경우 우타르안찰 주가 2000년 11월 9일에 각각 분리되었다. 비록 분리 독립은 2000년에 이루어졌지만, 이러한 독립된 주의 설립을 위한 노력은 역사적으로 매우 오래되었다. 예를 들면, 자르크한드의 경우 이미 1929년에 영국식민통치 당시에 사이몬위원회(Simon Commission)에 자르크한드 주의 설립을 요구하는 결의안이 제출되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O'Brien(2007) 참조.

〈표 2〉 인도국민회의당의 2004년 선거연합 결성 여부

	주	총의석수	1999	2004
선거연합 성공	마하라슈트라	48	X**	O
선거연합 실패 (연맹 잠재 대상)	아삼	14	X	X
	하리아나	10	X	X
	카르나타카	28	X	X
	마다프라데시	29	X	X
	차티스가르	11	X	X
	편자브	13	X**	X**
	우타르프라데시	80	X	X**

자료: Rana(2000), Sridharan(2004), *Economic and Political Weekly*(December 18, 2004), Appendix I(a); Ashraf(2004).

주: X는 실패사례, X**는 의미 없는 정당과의 소규모연합, O는 성공사례를 나타냄.

소선거구제에서는 득표율이 높은 정당이 보다 많은 의석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9년 선거에서 국민회의당이 다른 어떤 정당보다도 가장 많은 득표를 하였는데도 의석은 2위에 그치고 있다. 실제로 득표율에 비하여 거의 40석이나 못 미치게 의석을 얻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상대 정당인 인도인민당이 표를 의석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전환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국민회의당은 선거구에서 불필요하게 초과 획득한 잉여표가 많았거나, 많은 표를 얻었지만 여전히 의석을 획득하기에는 역부족이었던 선거구가 많이 존재하였다는 의미이다. 후자의 경우 국민회의당의 경우 선거연합을 통하여 득표율을 증가시키고 획득 의석수를 높일 필요성이 절실했다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각 주별로 국민회의당이 처한 정당연합의 개연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주별로 의석수와 득표수를 비교분석하여 보자. 결과는 〈표 4〉에 나와 있다. 우선 2004년도에 국민회의당이 선거연합을 성공적으로 이룬 주인 마하라슈트라를 먼저 살펴보자. 이 주의 경우 1999년 선거구도는 3강 구도였다. SHS(Shiv Sena)와 인도인민당의 연합에 국민회의당과 NCP(Nationalist Congress Party)가 분열되어 싸우는 형국이었다. 이 결과 국민회의당은 득표

〈표 3〉 1999년 총선에서의 각 정당의 의석과 득표율

정당	의석	의석비율	표	득표율	의석득표비	보너스의석
전국정당						
인도인민당	182	33.52%	86562209	23.75%	1.41	53.03
BSP	14	2.58%	15175845	4.16%	0.62	-8.61
공산당(CPI)	4	0.74%	5395119	1.48%	0.50	-4.04
공산당(CPM)	33	6.08%	19695767	5.40%	1.13	3.65
인도국민회의	114	20.99%	103120330	28.30%	0.74	-39.65
JD-S	1	0.18%	3332702	0.91%	0.20	-3.97
JD-U	21	3.87%	11282084	3.10%	1.25	4.19
부분합	369	67.96%	244564056	67.11%	1.01	-4.61
주 정당(합)	158	29.10%	98138763	26.93%	1.08	11.78
기타정당	10	1.84%	11738089	3.22%	0.57	-7.49
무소속	6	1.10%	9996386	2.74%	0.40	-8.89
전체	543	100	364437294	100	1.00	0.00

자료: 인도선거관리위원회, <http://www.eci.gov.in>. 여기서 전국정당과 주 정당, 기타 정당의 구분은 인도선거관리위원회의 분류기준을 따른 것이다. 보너스 의석은 득표율에 비하여 의석을 몇 석 더 혹은 덜 얻었는지를 보여준다.

주: CPI는 Communist Party of India, JD-S는 Janata Dal-Secular, JD-U는 Janata Dal-United를 의미한다.

〈표 4〉 1999년 국민회의당의 주별 의석과 득표율

주	총의석수	획득수	의석비율	득표율	의석득표비	보너스의석
마하라슈트라	48	10	20.83	29.71	0.70	-4.26
아삼	14	10	71.43	38.42	1.86	4.62
하리아나	10	0	0.00	34.93	0.00	-3.49
카르나타카	28	18	64.29	45.41	1.42	5.29
마다프라데시	40	11	27.50	43.91	0.63	-6.56
[마다프라데시-2004]	29	8	27.58	44.11	0.63	-4.79
[차티스가르-2004]	11	3	27.27	43.36	0.63	-1.76
편자브	13	8	61.54	38.44	1.60	3.00
우타르프라데시	85	10	11.76	14.72	0.80	-2.51
전국합계	543	114	20.99	28.30	0.74	-39.67

자료: 인도선거관리위원회, <http://www.eci.gov.in>. *Economic and Political Weekly*(December 18, 2004), Appendix 1(a). 마다프라데시의 경우 2004년도에 두 개의 주로 분리됨.

율에 비하여 의석의 비율이 낮은 편이었다. 이것은 개별 선거구에서의 선거 연맹을 위한 조건만 맞는다면 2004년도에 와서 NCP와 선거연합을 형성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개별 선거구에서의 경쟁구도를 살펴 보면 그림 2에서와 같이 선거연합을 위한 이상적인 조건에 근접하고 있다. 마하라슈트라와 우타르프라데시의 경우 대부분의 선거구가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거연합 형성을 위한 삼각영역 안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제는 실패한 주들을 살펴보자. 해당 주는 아삼, 하리아나, 카르나타카, 마다프라데시, 차티스가르, 펀자브, 우타르프라데시이다. 이 중에서 차티스가르는 2004년 선거에 신설된 주인데, 그 이전에는 마다프라데시 주에 편입되어 있었다. 따라서 이 주의 경우에는 1999년의 마다프라데시 주의 선거결과를 두 개로 나누어 살펴야 한다. 이 7개 주 중에서 아삼, 카르나타카, 펀자브의 경우에는 1999년에 국민회의당이 선거연맹을 형성하지 않고도 그 주에서 제1당으로 등장하였다. 따라서 1999년에 득표율보다도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하였던 탓에 굳이 2004년에 선거연맹을 시도할 필요가 없었다.

반면 하리아나, 마다프라데시, 차티스가르, 우타르프라데시 등 4개 주는 국민회의당이 제1당이 아니었기 때문에 득표율에 비하여 의석의 비율이 낮았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만 본다면 이 4개의 주에서 선거연합을 시도하여야 하지만 실제로 2004년도 선거결과는 그렇지 않았다. 이러한 선거연합의 실패 현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1999년 개별 지역구 내에서의 경쟁구도를 주목하여야만 할 것이다. 주 전체적으로 볼 때는 득표율에 비하여 의석의 비율이 낮아서 선거연합을 하는 것이 매우 유리하게 보이지만, 실제로 개별 선거구의 경쟁구도를 살펴보면 반드시 그렇지도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논문의 가설에 따라서 개별 주의 선거구별 경쟁구도를 살펴보면 그림 2와 같다. 이 그림은 국민회의당이 1999년에 해당 주에서 선거구별로 2위나 3위를 하였을 때 1위 정당과의 득표율 차이와 3위 정당의 득표율의 분포도를 나타낸 것이다. 보다 자세히 말하면, 이 그림은 만약에 국민회의당이 2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1위 정당과의 득표율 차이가 얼마이고 이러한 차이에 비하여 3위 정당의 득표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나타낸다. 만약에 국민회의당이 3위를 한 경우에는 이 정당의 득표율을 2위 정당과 1위 정당의 득표율 차이

와 비교할 수 있게 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만약에 국민회의당이 선거연합을 하려면 2위 정당으로서 별로 커지도 너무 작지도 않은 차이로 1위 정당에 지고 있고 다른 3위 정당의 득표율이 충분히 커야 한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다른 정당이 2위 정당으로서 1위 정당과 커지도 작지도 않은 표차로 지고 있고 이 정당이 이기기 위하여 3위인 국민회의당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때 선거연합은 가능하다.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리아나의 경우, 국민회의당이 2위나 3위로 패배한 선거구를 살펴보면, 3위 정당이 1위와 2위 정당의 승패를 뒤바꾸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따라서 국민회의당이 2위일 때나 3위일 때 선거연합을 형성할 계기가 존재하지 않는다. 마다프라데시 주와 이 전에 그 주에 편입되어 있었던 차티스가르 주의 경우를 살펴보면, 국민회의당이 2위나 3위로 패배하였을 때 대부분의 선거구에서 1위와의 표차이가 너무 나서 선거연합을 통하여 극복할 수가 없다.

이에 반하여 우타르프라데시의 경우에는 국민회의당(INC)이 2위나 3위를 할 때, 정당연합을 할 계기가 충분히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주에서 국민회의당의 선거연합이 없었을까하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⁹ 하지만 이러한 의문은 삼각영역 안에 들어온 9개의 선거구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사라지게 된다. 우타르프라데시의 경우 <표 5>에서 알 수 있듯이 국민회의당이 다른 정당과 선거연합을 하여도 별로 이득이 없는 경쟁구도이다.

9. 흑자는 우타르프라데시의 경우 정당연합의 부재는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볼지 모른다. 그 주에서는 정당이 카스트와 종교 문제로 극명하게 나뉘어져 있었다. 예를 들면, 일부 상층카스트, 일부 무슬림, 일부 달리트 등을 아우르는 인도국민회의당과 달리, SP의 경우에는 하층카스트지만 정치적으로 강력한 아다브(Yadav) 카스트와 무슬림, BSP의 경우에는 최하층 카스트인 불가촉천민 혹은 달리트(Dalit), BJP의 경우 상층카스트가 각각 지지기반이었다. 이렇기 때문에 이들 간의 정당연합의 부재는 당연하다고 볼지 모른다. 하지만 비록 선거 전 연합은 아니지만, 양극단에 있는 두 정당인 BSP와 BJP가 공동연합 주정부를 구성한 적이 있고, SP와 BJP 역시 선거이후 정당연합을 한 적이 있었다. 단순히 지지기반이나 정책 등만 본다면 이 둘은 정당연합을 선거 이후에도 할 이유가 전혀 없다. 단순히 정책이나 지지기반의 문제가 아니라 선거연합을 통한 선거구 단위에서의 이해득실에서 정당 간 연합이 정당들에게 윈-윈(win-win) 전략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당연합이 부재한 것이었다. 실제로 2009년 선거에서 SP는 인도국민회의당과 선거연합을 강력하게 희망하였지만, 선거구에서의 의석조정의 실패로 두 정당은 연합에 실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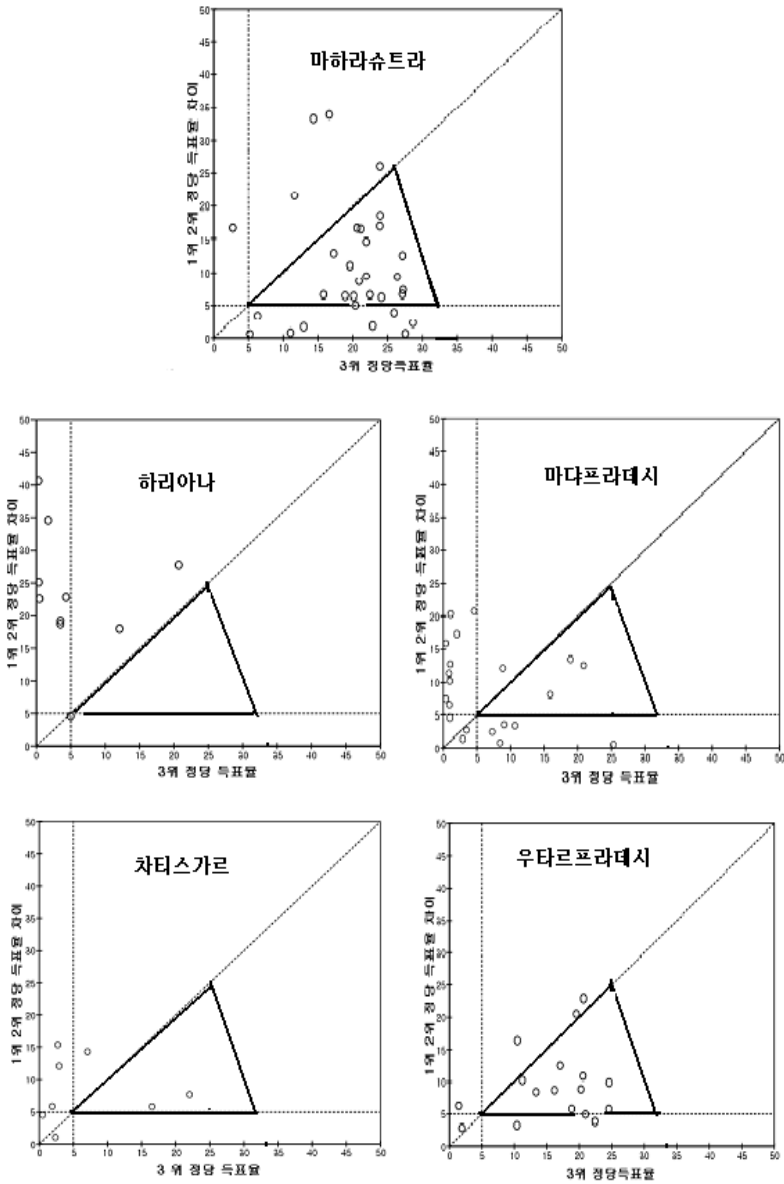


그림 2. 선거구별 경쟁구도 분포도와 선거연맹 가능성: 5개 주 분석

주: 논리적으로 3위 정당의 득표율은 100/3%를 넘을 수 없고 1위와 2위 정당의 득표율차이는 100%가 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두 축의 대칭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두 축 모두 50%까지 설정하여 놓았다. 선거연맹이 가능한 논리적 삼각영역은 굵은 선으로 표시함.

〈표 5〉 삼각영역 내부 개별 선거구의 경쟁구도 분석: 성공과 실패 사례

실패사례: 우타르프라데시				성공사례: 마하라슈트라			
선거구	1위	2위	3위	1위	2위	3위	선거구의 수
D1	BJP	INC	SP	SHS	INC	NCP	5개
D2	SP	BJP	INC	BJP	INC	NCP	4개
D3	SP	BJP	INC	SHS	NCP	INC	3개
D4	BJP	SP	INC	BJP	NCP	INC	2개
D5	BJP	SP	INC				
D6	BJP	BSP	INC				
D7	BSP	BJP	INC				
D8	BJP	INC	BSP				
D9	BJP	INC	AD				

자료: 인도선거관리위원회, <http://www.eci.gov.in>.

주: 여기서 AD는 군소정당인 Apna Dal을 나타낸다.

이유는 이 주에서는 국민회의당의 주적은 인도인민당(BJP)으로서 삼각영역에 들어 있는 9개 모든 선거구에서 이 당은 1위이거나 2위이다. 그런데 이 당을 9개 선거구에서 전체적으로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의 정당과 연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정당과 연합을 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9개의 선거구를 다시 보면, 국민회의당이 개별적으로 SP나 BSP와 연합을 한다고 하여도 그렇게 득실이 없다. 우선 9개의 선거구 중에서 의석 교환을 통하여 국민회의당이 증대시킬 수 있는 자리 수는 겨우 1 내지 2석에 불과하다. 반면에 연합대상인 SP나 BSP는 오히려 국민회의당이 역으로 다른 정당과 연합을 통하여 1 내지 2개의 선거구에서 패배시켜야만 하는 경쟁구도를 갖추고 있었다.

우타르프라데시에서 이렇게 정당 간 경쟁구도가 선거연합을 시도하기에는 서로 너무 얽혀 있다는 사실은 성공적으로 선거연합을 한 마하라슈트라 주와 대조하면 명약관화하게 드러난다. 마하라슈트라에서 삼각영역에 들어온 14개 선거구를 자세히 분석하면, SHS와 인도인민당이 이미 선거연맹을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민회의당이 2위나 3위인 선거구에서 삼각영역의 14개 선거구 모두에서 사실상 NCP와 연합하여야 하는 경쟁구조였다. 다시 말하면, 우타르프라데시와 달리 마하라슈트라에서는 국민회의당의 주요한 정적이 인도

인민당과 SHS연합으로 통일되어 있었고 또한 이들과 싸우기 위하여 연합을 시도해야 하는 정당도 모든 선거구에서 단일하게 NCP 하나에 불과하였다. 이것은 정당연합을 보다 용이하게 하는 주요한 조건들이었다.

IV. 결 론

이 글에서는 정당연합에 관한 기존의 문헌이 선거 이후 연립정부 구성을 위한 논의에 치중한 것과 달리 선거이전 정당연합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하여 보았다. 기존의 논의가 주로 내각에서의 자리 배분이나 이념 혹은 정책의 실현을 목표로 정치연합을 한다고 가정하는 것과 달리 여기서는 선거에서의 의석확보를 목표로 정당이 연합을 한다고 가정하였다. 또한 이 글에서 선거연합이라고 함은 구체적으로 소선거구제 아래서 후보공천을 정당 간에 상호 조율하는 것(seat adjustment)을 말한다.

선거연합을 설명하기 위하여 여기서는 갬슨과 라이커의 정치연합 일반이론을 수정 보완하였다. 이 결과 정당은 최소의 자원(resources)으로 추가의석을 획득하려고 한다는 기본 전제에서 출발하여 승리를 위한 최소규모의 연합을 지향한다고 본다. 이것은 3개의 정당이 있을 때 2위와 3위 간의 정당이 선거연맹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2위와 3위 간의 정당끼리 언제나 선거연맹을 형성하지는 않는다.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그것은 가능하다. 우선 기본적으로 연합을 통하여 1위 정당을 이길 수 있어야만 한다. 하지만 이러한 조건은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다. 특히 이것은 선거이후 연립내각을 구성하기 위한 정당연합과 달리 선거에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러한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1위와 2위의 정당득표율 차이가 어느 정도 크고, 3위의 정당득표율 역시 어느 정도 크고, 또한 동시에 이 3위의 정당득표율이 1위와 2위의 정당 득표율 차이를 초과할 때 선거연합이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런 다음에 이 이론을 그림으로 나타내었는데 이것이 선거연합 가능 삼각영역이다.

이것은 기존의 정당연합이론, 특히 최소비용 연합론과 다음과 같이 차이가 난다. 우선, 1위와 2위의 표차가 미미한 상태에서 3위가 소규모이지만 1위와 2위의 표차를 초과하는 득표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될 때, 기존 이론은 1위와 3위 혹은 2위와 3위 간의 정당연합을 예상하지만 여기서는 선거연합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본다. 또한 1위, 2위, 3위 정당이 미미한 차이가 나지만 모두 비슷한 득표율을 보인다고 가정할 때도 기존의 이론은 1위와 2위, 2위와 3위, 1위와 3위 간에 선거연합이 모두 가능할 것으로 보지만 이 논문에서는 개별 정당이 단독으로 후보를 낼 것으로 본다.

이 글에서는 인도의 사례에 새로운 이론인 삼각영역 이론을 적용하여 보았다. 무수히 많은 정당이 경쟁하고 있는 인도에서 모든 정당을 분석하기 힘들기 때문에 여기서는 두 개의 최대 정당 중 하나인 국민회의당의 선거연합을 분석하여 보았다. 특히 이 글은 2004년도 선거연합 결과를 1999년도 선거자료에 비추어서 검토하였다. 또한 인도 정당정치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선거연합을 개별 주별로 살펴보았다. 전체 35개의 주 또는 연방령 중 이 연구에서 설정한 일정한 기본여건을 1999년에 7개 주만 충족하는데, 이 중에서 1개 주에서만 2004년에 의미 있는 선거연합이 일어났고 나머지 주들에서는 선거연합이 없었다. 나아가 선거연합이 없었던 주들 중에서 3개는 국민회의당이 제1당으로서 연맹을 시도할 필요가 없었기에 굳이 이론적 분석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 결과 여기서는 1개의 성공사례와 3개(2004년도 기준으로는 4개)의 실패 사례만 분석하여 보았다.

분석 결과, 선거연맹의 성공사례인 마하라슈트라는 이글의 삼각영역 이론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음을 발견하였고, 실패사례에 속하는 하리아나, 차티스가르, 마다프라데시는 그 이론으로 왜 실패하였는지 설명이 가능하였다. 하지만 가장 많은 선거구를 가지고 있는 우타르프라데시 주의 경우에는 언뜻 보기에는 삼각영역 이론으로는 설명이 안 되었지만, 삼각영역 내의 개별 선거구의 경쟁구도를 일일이 검토하여 보면 이것 역시 그 이론으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였다.

종합하여 보면, 지금까지 정치연합을 다루는 일반문헌이 선거 이후 연립정부 구성을 위한 정당연합에 주로 초점을 맞추으로써 개별 선거구에서의 정당

의 경쟁구도와는 무관하게 설명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번 연구는 선거 이전 인도에서의 정당연합에 초점을 맞추고 개별 선거구에서의 선거연합을 통하여 정당이 얻는 득과 실을 중심으로 정당연합을 설명하여 보고자 하였다. 기존의 정당연합 논의는 분석의 단위가 전국이었고 주로 의회 내의 정당의 정책연합이나 내각구성을 위한 정당연합에 초점을 맞추었고 비록 골더처럼 선거에서의 정당연합을 논의할 때에도 선거구 단위의 경쟁구도에는 초점을 맞추지 않았다. 단순히 전국적으로 볼 때, 정당이 갖는 이념적 지향성과 정당 간의 이념적 거리, 정당체계의 이념적 양극화 정도, 그리고 선거제도에 따라서 나라별로 혹은 시기별로 연합이 일어날 가능성을 연구하였다. 이에 반하여 이 글은 개별선거구에서의 정당 간의 경쟁구도에 초점을 맞추고 정당연합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특히 이 연구는 갬슨과 라이커의 최소규모 정치연합론을 수정하여 삼각영역이론으로 발전시키고 이것을 선거구 단위에서의 정당연합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여 보았다. 또한 인도를 사례연구의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기존에 유럽정치 중심의 사례연구의 한계를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참고문헌

- 고경희. 2001. 「인도의 사회균열과 정당체계: 포괄정당의 쇠퇴와 대항정당의 사회균열 동원전략」. 『한국정치학회보』 35권 4호. pp. 317-335.
- 최정욱. 2007. 「인도의 민주주의 공고화와 정당체계의 변화에 관한 연구노트: 인도정치에 대한 연구관심의 제고를 기대하며」. 『국제·지역연구』 16권 4호. pp. 21-44.
- 최정욱. 2008. 「인도 총선에서의 전략적 투표: 1996년부터 2004년 선거까지 선거구 결과분석」. 『국제·지역연구』 17권 3호. pp. 81-103.
- Ahuja, M.L. 2005. *General Elections in India: Electoral Politics, Electoral Reforms and Political Parties*. New Delhi: Icon Publications.
- Andersen, Walter K. 1990. "Election 1989 in India: The Dawn of Coalition Politics?" *Asian Survey* 30(6). pp. 527-540.
- Andeweg, Rudy B. 2007. *Government Formation Coalition Theory and Deviant Cases*. London: Routledge.
- Asharf, Tariq. 2004. *Election 2004: A Profile of Indian Parliamentary Elections since*

1952. New Delhi: Bookwell.
- Browne, Eric C. and John Dreijmanis, eds. 1982. *Government Coalitions in Western Democracies*. New York: Longman.
- Browne, Eric C. and Peter Rice. 1979. "A Bargaining Theory of Coalition Formation."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9(1). pp. 67-87.
- Butterworth, Robert L. 1971. "A Research Note on the Size of Winning Coalition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5(3). pp. 741-748.
- Caplow, Theodore. 1956. "A Theory of Coalition in the Triad."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21(4). pp. 489-493.
- Caplow, Theodore. 1959. "Further Development of a Theory of Coalitions in the Triad."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64(5). pp. 488-493.
- Carroll, Royce and Gary W. Cox. 2007. "The Logic of Gamson's Law: Pre-election Coalitions and Portfolio Allocation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51(2). pp. 300-313.
- Chadda, Maya. 2000. *Building Democracy in South Asia: India, Nepal, and Pakistan*. Boulder: Lynne Rienner Publishers.
- Chandra, Kanchan. 2004. *Why Ethnic Parties Succeed: Patronage and Ethnic Head Counts in Indi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hatterjee, Partha. 1997. *State and Politics in India*. New Delhi: Oxford University Press.
- Chhibber, Pradeep K. and Ken Kollman. 2004. *The Formation of National Party Systems: Federalism and Party Competition in Canada, Great Britain, India and the United State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Chiriyankandath, James. 1997. "Unity in Diversity"? Coalition Politics in India (with special reference to Kerala)." *Democratization* 4(4). pp. 16-39.
- Choi, Jungug. 2009. "Strategic Voting in India: Its Extent and Determinants in the 2004 General Election." *Asian Survey* 49(4). pp. 609-624.
- Cox, Gary W. 1997. *Making Votes Count: Strategic Coordination in the World's Electoral System*.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e Swaan, Abram. 1973. *Coalition Theories and Cabinet Formations: A Study of Formal Theories of Coalition Formation Applied to Nine European Parliaments after 1918*. San Francisco: Jossey-Bass Inc.
- Duverger, Maurice. 1954. *Political Parties: Their Organization and Activity in the Modern State*. London: Methuen & Co. Ltd.
- Frankel, Francine R., Zoya Hasan, Rajeev Bhargava, Balveer Arora, eds. 2000. *Transforming India: Social and Political Dynamics of Democracy*. New Delhi: Oxford University Press.
- Franklin, Mark N. and Thomas T. Mackie. 1984. "Reassessing the Importance of Size and Ideology for the Formation of Governing Coalitions in Parliamentary Democracie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8(4). pp. 671-692.

- Gamson, A. William. 1961. "A Theory of Coalition Forma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26(3). pp. 373-382.
- Gamson, A. William. 1980. "Coalitions: Coalition Formation." In David L Sills, ed.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s* 2. 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 & the Free Press. pp. 529-534.
- Golder, N. Sona. 2005. "Pre-electoral Coalitions in Comparative Perspective: A Test of Existing Hypotheses." *Electoral Studies* 24. pp. 643-663.
- Golder, N. Sona. 2006. "Pre-electoral Coalition Formation in Parliamentary Democracies."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6. pp. 193-212.
- Hardgrave, Robert L., Jr. and Stanley A. Kochanek. 2000. *India: Government and Politics in a Developing Nation*. Forth Worth: Harcourt College Publishers.
- Jalal, Ayesha. 1995. *Democracy and Authoritarianism in South Asia: A Comparative and Historical Perspectiv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Jayal, Niraja Gopal, ed. 2001. *Democracy in India*. New Delhi: Oxford University Press.
- Jenkins, Rob, ed. 2004. *Regional Reflections: Comparing Politics across India's States*. New Delhi: Oxford University Press.
- Kahan, James P. and Amnon Rapoport. 1984. *Theories of Coalition Formation*.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Kaminski, Marek M. 2001. "Coalitional Stability of Multi-party Systems: Evidence from Poland."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5(2). pp. 294-312.
- Kohli, Atul, ed. 2001. *The Success of India's Democrac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aver, Michael. 1998. "Models of Government Formation."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1. pp. 1-25.
- Laver, Michael. 2000. "Government Formation and Public Policy." *PS: Political Science and Politics* 33(1). pp. 21-23.
- Laver, Michael and Ian Budge. 1992. *Party Policy and Government Coalitions*. New York: St. Martin's Press.
- Laver, Michael and Kenneth A. Shepsle. 1990. "Coalitions and Cabinet Government."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4(3). pp. 873-890.
- Laver, Michael and Norman Schofield. 1998. *Multiparty Government: The Politics of Coalition in Europe*. Ann Arbor: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Majeed, Akhtar, ed. 2000. *Coalition Politics and Power Sharing*. New Delhi: Manak.
- Martin, Lanny W. and Randolph T. Stevenson. 2001. "Government Formation in Parliamentary Democracie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5(1). pp. 33-50.
- Mehra, Ajay K., D. D. Khanna and Gert W. Kueck, eds. 2003. *Political Parties and Party Systems*. New Delhi: Sage Publications.
- Mershon, Carol. 2001. "Contending Models of Portfolio Allocation and Office Payoffs

- to Party Factions: Italy 1963-79.”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5(2). pp. 277-293.
- Mitra, Subrata K. and V. B. Singh. 1999. *Democracy and Social Change in India: A Cross-sectional Analysis of the National Electorate*. New Delhi: Sage Publications.
- Mueller, Dennis C. 2003. *Public Choice III*.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uller, Wolfgang C. and Kaare Strom, eds. 2000. *Coalition Governments in Western Europ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O'Brien, Derek. 2007. *The Penguin Yearbook 2008*. New Delhi: Penguin Books.
- Powell, G. Bingham, Jr. 2000. *Elections as Instruments of Democracy: Majoritarian and Proportional Vision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Rana, M.S. 2000. *India Votes: Lok Sabha and Vidhan Sabha Elections, 1999, 2000*. Delhi: B. R. Publishing.
- Ray, Debraj. 2008. *A Game Theoretic Perspective on Coalition Forma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Riker, William H. 1962. *The Theory of Political Coalition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Riker, William H. 1980. “Coalitions: The Study of Coalitions.” In David L Sills, ed.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s* vol. 2. 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 & the Free Press. pp. 524-529.
- Rudolph, Lloyd I. and Susanne Hoeber Rudolph. 1987. *In Pursuit of Lakshmi: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Indian State*. Chicago: Chicago University Press.
- Shastri, Amita and A. Jeyaratnam Wilson, eds. 2001. *The Post-colonial States of South Asia: Democracy, Development and Identity*. New York: Palgrave.
- Shepsle, Kenneth A. 1974. “On the Size of Winning Coalition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8(2). pp. 505-518.
- Singh, Hoshiar, P.C. Mathur and Pankaj Singh, eds. 2007. *Coalition Governments and Good Governance*. Jaipur: Aalekh Publishers.
- Singh, Mahendra Prasad. 2001. “India’s National Front and United Front Coalition Governments: A Phase in Federalized Governance.” *Asian Survey* 41(2). pp. 328-350.
- Singh, Mahendra Prasad and Anil Mishra, eds. 2004. *Coalition Politics in India: Problems and Prospects*. New Delhi: Manohar.
- Sridharan Eswaran. 2003. “Coalitions and Party Strategies in India’s Parliamentary Federation.” *Publius* 33(4). pp. 135-152.
- Sridharan Eswaran. 2004. “Electoral Coalitions in 2004 General Elections: Theory and Evidence.” *Economic and Political Weekly* 34(51). pp. 5418-5425.
- Strom, Kaare and Ian Budge and Michael J. Laver. 1994. “Constraints on Cabinet Formation in Parliamentary Democracie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8(2). pp. 303-35.

- Taagepera, Rein and Matthew S. Shugart. 1989. *Seats and Votes: The Effects and Determinants of Electoral System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Volden, Craig and Clifford J. Carrubba. 2004. "The Formation of Oversized Coalitions in Parliamentary Democracie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8(3). pp. 521-537.
- Wyatt, Andrew. 1999. "The Limitations on Coalition Politics in India: The Case of Electoral Alliances in Uttar Pradesh." *Commonwealth & Comparative Politics* 37(2). pp. 1-21.

A New Coalition Theory of Triangular Area and Its Application: India's 1999~2004 Elections

Jungug Choi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Konkuk University

This study deals with pre-electoral alliances or coalitions of political parties at the electoral district level, unlike the existing literature that focuses primarily on the nation-wide post-election political coalitions in the legislature. It defines pre-electoral alliances as seat adjustments among participant parties. In particular, it revises the classic theories of political coalition, such as Riker's size principle and Gamson's cheapest coalition theory, in an attempt to pay due attention to the importance of electoral uncertainty in the process of political negotiation among parties. It consequently develops a new coalition theory of triangular area

The new theory of triangular area posits that when there are three contending political parties in a single-member district system, they will engage in electoral alliance under the following conditions: (1) when three parties are not equal in electoral strength, (2) when the difference in expected vote share between the top two parties ($v_1 - v_2$) is not small (in this study, smaller than 5% for the sake of convenience), (3) when the smallest party's expected electoral share (v_3) is not small either, and at the same time, (4) when the value of v_3 is greater than that of ($v_1 - v_2$). This theory implies, unlike the classic theory of political coalition, that no political party will make an electoral alliance with any other party when three parties

are of nearly equal strength. In addition, neither of the two almost equally strong parties will not forge an electoral alliance with the smallest party when this third party's estimated vote share remains absolutely small, even if large enough to determine a winner.

In the subsequent section, this study applies the new theory to the case of India. It analyzes the Indian Congress Party's success and failure in election alliance in the 2004 general election, in which the party made the most vigorous efforts to expand its electoral coalition in history. More specifically, it explores why the political party succeeded in making an electoral alliance in some Indian states while it failed in other states. It finds that the new theory accounts very well for the success and failure of the Indian Congress Party, despite some difficulty with the state of Uttar Pradesh.

Key words: political coalition, electoral alliance, size principle, cheapest coalition theory, and theory of triangular area, India

